

AI 페퍼스, 얇은 선수층 '투혼'으로 메운다



V리그 반환점을 돌고 4라운드에 들어선 광주 페퍼저축은행 여자배구단 AI페퍼스가 '선수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당면했다.

지난 29일 인천삼산월드에서 열린 흥국생명전은 아쉬움이 고스란히 나타난 경기였다.

AI페퍼스는 이날 선수 한 명이 작은 부상이라도 입으면 경험 적은 신인 선수들로 코트를 메워야 하는 등 '얇은 선수층'의 문제로 골머리를 썩었다.

이날 AI페퍼스는 의도치 않게 센터 라인업에 변화를 줬다. 센터 하혜진이 피로 누적으로 왼쪽 발목 이상을 느껴 전선에서 물러났기 때문이다.

최근 AI페퍼스는 센터의 공격력을 높이기 위해 하혜진을 세터 이전 옆에 배치하는 변화를 시도했으나, 정작 하혜진이 빠지자 전력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최가은은 다시 이전 옆에 섰고, 경험이 적은 최민지와 신인 서채원이 번갈아 주전 센터를 맡았다.

실상가상으로 부상병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다.

주장 이한비는 스트레스로 인한 소화기 장애와 허리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주포' 엘리자벳은 2-3라운드 내내 오른쪽 팔꿈치 통증으로 테이프를 감고 다녔고, 이달 중순에는 무릎 통증에 시달려 경기에서 잠시 제외되기도 했다.

이현의 짐을 덜어줘야 하는 세터 구술도 수비 훈련 중 허리 통증을 느끼고 전역에서 이탈했다. 재활 중인 박사람이 틈이 출전해 녹슬지 않은 세트 실력을 보여주곤 있지만, 아직 발목 부상이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라 적극적인 플레이를 기대하긴 힘들

하혜진·엘리자벳·이한비 등 주전 선수들 테이프 감고 경기 경기력 좋아졌지만 체력 한계 아쉬운 실점으로 승리 내 줘

다.

부족한 체력도 고질적인 문제다.

AI페퍼스는 이날 경기 초반부터 집중력을 끌어올려 서브부터 디그, 득점까지 이전보다 발전한 경기력을 선보였지만, 경기가 깊어질수록 눈에 띄게 지친 모습을 보여줬다. 앞선 3개 세트에서는 모두 20점을 넘겼지만, 4세트부터 분위기가 바뀌었다. 체력 고갈로 동작이 느려져 무기력하게 실점하기를 반복한 끝에 13-25, 무려 12점차로 승리를 내주고 말았다.

AI페퍼스 주전은 모두 지난 시즌까지 다른 팀에서 백업 출전만 해 왔던 선수들이다. 출전 시간이 갑자기 늘어난데다 마땅히 교체할 전력도 없으니 주전 선수들의 몸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충분한 준비 과정이 없기도 했다. AI페퍼스는 신생팀 연구지를 확장한 지난 5월부터 시즌 개막까지 단 5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6개월 '장거리 레이스'를 버틸 체력을 기르기에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다.

김형실 AI페퍼스 감독의 걱정도 크다. 김 감독은 매 경기에 앞서 "선수들이 피로가 쌓인데다 연패에 대한 강박관념까지 피부로 느끼면서 많이 지친 것



AI페퍼스가 지난 29일 시즌 13연패를 당하는 등 침체에 빠져 있다. 김형실 감독과 선수들이 지난 5일 기업은행전에서 작전 회의를 하고 있다. <KOVO 제공>

같다. 경기 중 컨디션의 50%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팀 상황을 설명한다.

김 감독은 선수들이 부담을 털고 다시 신나는 배구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다. 김 감독은 최근

선수들에게 휴식 시간을 충분히 주고자 한다. 30일에도 계획상 이틀 뒤 인삼공사전에 대비한 훈련이 예정돼 있었지만, 김 감독은 선수들에게 '1일 휴식'을 줬다.

그는 또 박은서, 서채원, 박사람 등 그동안 코트에 자주 오르지 못했던 신인들의 출전 시간을 늘릴 계획도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호랑이 띠' 타이거즈 박정우 '호랑이 해' 질주 기대하세요

잊지 못할 데뷔 시즌 보내 김중국 "KIA 미래의 희망" "작전야구의 한 축 되겠다"



박정우

잊지 못할 데뷔시즌을 보낸 '호랑이띠' 박정우가 '호랑이 해' 질주를 준비한다.

지우고 싶은 KIA 타이거즈의 2021시즌이었다. 무기력한 플레이로 일찍 5강 싸움에서 밀어졌고, 올해도 아쉬운 부상은 이어졌다.

내용·결과 모두 좋지 못했지만 팬들을 웃게 한 이들도 있었다. 외야수 박정우도 눈길 끈 선수 중 한 명이었다.

시즌을 앞두고 진행된 자체 연습경기에서 아마추어 시절에도 기록하지 못했던 홈런을 날리며 월리엄스 감독의 눈도장을 찍었고, 가을에는 부지런히 그라운드를 누비면서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프로 5년 차에 만든 최고의 해였다.

박정우는 "5월 1일 데뷔한 날이 가장 좋았다. 첫 안타를 기록했을 때는 긴장해서 친 줄도 몰랐다. '제발 제발'을 외치면서 뛰었다"며 "신고선수였다가 데뷔를 했다. 기회가 없을 줄 알았는데 꿈같은 시즌이었다"고 웃었다.

꿈같은 시즌, 박정우에게는 깨기 싫은 꿈이기도 했다.

박정우는 "시즌을 보내면서 잠도 잘 못 자고 새벽에 놀라서 깨기도 했다. 1군에서 시합을 하니 2군에 내려가기 싫었다. 못하면 내려가는 게 당연하니 잠을 설치기도 했다"고 이야기했다.

앞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던 만큼 어렵게 찾아온 기회가 간절했다.

박정우는 "시작이 안 좋았다. 자리가 없어서 군대도 갔고, 다녀와서는 다쳐서 눈치도 보였다. 11월만 되면 '방출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 올해도 솔직히 그런 생각을 했다. 1군에서 뛰 선배들이 팀을 나가는 것 보면서 생각이 많았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때와 다른 모습, 경쟁자로 뛰었던 친구들의 활약도 박정우를 작아지게 했다. 올 시즌 타격왕에 오른 키움 이종후와 함께 김해성, 김재웅 등이 박정우의 친구들이다.

박정우는 "내 친구들은 다 잘 해서 TV를 보면서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다. 반이라도 따라가고 싶은 마음에 의욕이 앞서 부상을 당하는 등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며 "고등학교 때는 자신감 있게 했었다.

못하면 '다음에 잘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프로는 다음이 없는 것 같다. 그런 걸 아니까 잘해야지 잘해야지 하는데 더 못하고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힘들었다"고 말했다.

올 시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올림픽 휴식기에 진행된 연습경기에서는 무릎 부상을 입었고, 1군 재진입을 노리던 상황에서는 2군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위기를 넘은 박정우는 결실의 가을을 보낼 수 있었다.

175cm 단신 선수로 파워는 부족하지만 약삭같은 플레이로 팬들과 코칭스태프의 마음을 끌었다. 김중국 감독이 올 시즌을 돌아보며 '미래의 희망'으로 언급한 이름 중 하나가 박정우다.

박정우는 "코치님들이 기대를 하시는 줄 몰랐다. 자존감이 낮다. 저를 인정해주셨으니까 열심히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 나는 시즌 끝났을 때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 나는 지금도 시즌이다"고 언급했다.

올 시즌을 통해 박정우는 1군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배웠다.

박정우는 "우선 몸을 불려야 할 것 같다. 손목 운동도 해야 한다. 근육량이 적어서 1월에도 안 쉬고 똑같이 운동해야 경쟁할 수 있다"며 "1군에 오는 선수들은 다 잘하니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 파워나 민첩성에서 하나라도 부족하면 안 된다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순발력은 생존을 위한 키워드다. 박정우에게 팀

이 기대하는 부분이 수비와 주루고, 부족한 화력을 채우기 위해 김중국 감독은 작전 야구를 맡기고 있다. 또 견고한 센터 라인을 강조하는 만큼 박정우는 순발력을 키워 입지를 넓혀야 한다.

박정우는 "수비에서 첫 스타트가 중요한데 순발력이 필요하다. 주자로도 순발력이 중요하다. 도루를 2번 했는데 다 죽었다. 2군에서는 잘 했는데 1군에서는 통하지 않으니까 순발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내 장점은 수비다. 수비에서는 실수하고 싶지 않다. 실수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작전 야구" 위주로 간다면 기회가 더 생길지 않을까 생각한다. 더 연습해야 한다"며 "내가 시합 나가게 되면 대주자, 대수비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스타트 연습도 하고 투수의 투구 습관을 본다던가 포수의 움직임 같은 것을 살펴보고 있다. 야구 영상도 많이 보고 있다. 내가 플레이했던 영상도 다시 보면서 공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로의 높은 벽 앞에서 한없이 작아졌던 박정우는 화려한 무대도 경험했다. 그만큼 새 시즌을 기다리는 각오가 남다르다.

박정우는 "2군에 내려가기 싫다. 너무 힘들다. 박기남 코치님이 사랑을 주시는 만큼 너무 힘들게 훈련을 시키신다(웃음). 코치님이 내려오지 말라고 한다. 2022시즌에는 안 내려가는 게 목표다. 꼭 보여드리겠다. 신인들도 들어오고 또 경쟁해야 한다. 지고 싶지 않다"고 호랑이해를 맞는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전남드래곤즈, 광주대 출신 공격수 이종민 임대 영입



전남드래곤즈가 성남 FC의 공격수 이종민(22·사진)을 임대 영입했다.

이종민은 광주대 시절 U리그 득점왕에 오른 스트라이커로 2020년 자유계약으로 성남 유니폼을 입었다. 프로 첫해 기회를 얻지 못했던 이종민은 지난 3월 열린 포항스틸러스와의 K리그1 6라운드 경기에서 데뷔전 결승골을 기록하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4월 부산아이파크와의 FA컵 3라운드에서는 센

타백으로 출전해 결승골을 장식했다. 이종민은 187cm의 큰 키를 활용한 연계플레이와 순간적인 침투 능력이 좋고 많은 활동량을 바탕으로 올 시즌 21경기에 출전했다.

장신인 이종민은 센터백으로도 몇 차례 출전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후방에서의 활용 가능성도 보여줬다.

이종민은 "전남드래곤즈는 어릴 때부터 강팀으로 알고 있었고, 꼭 뛰어보고 싶은 팀이었는데 이렇게 오게 돼 기쁘다. 팀에 잘 적응해서 K리그1으로 승격하고 ACL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신태용 인도네시아 감독 "공은 둥글다"

스즈키컵 결승 1차전 0-4 패배 모레 태국과 2차전 역전 노력

인도네시아 축구 대표팀 사령탑 부임 이후 처음으로 나선 아세안축구연맹(AFF) 챔피언십(스즈키컵)에서 결승까지 올랐으나 첫 경기에서 대패한 신태용 감독은 결과를 받아들이면서도 끝까지 포기하는 각오를 다졌다.

신태용 감독은 29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칼랑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태국과의 2020 스즈키컵 결승 1차전을 마치고 기자회견에서 "패배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이날 대회 최다 우승팀(5회) 태국에 0-4로 대패했다. 다음 달 1일 2차전이 남아

있지만, 인도네시아의 대회 사상 첫 우승은 사실상 멀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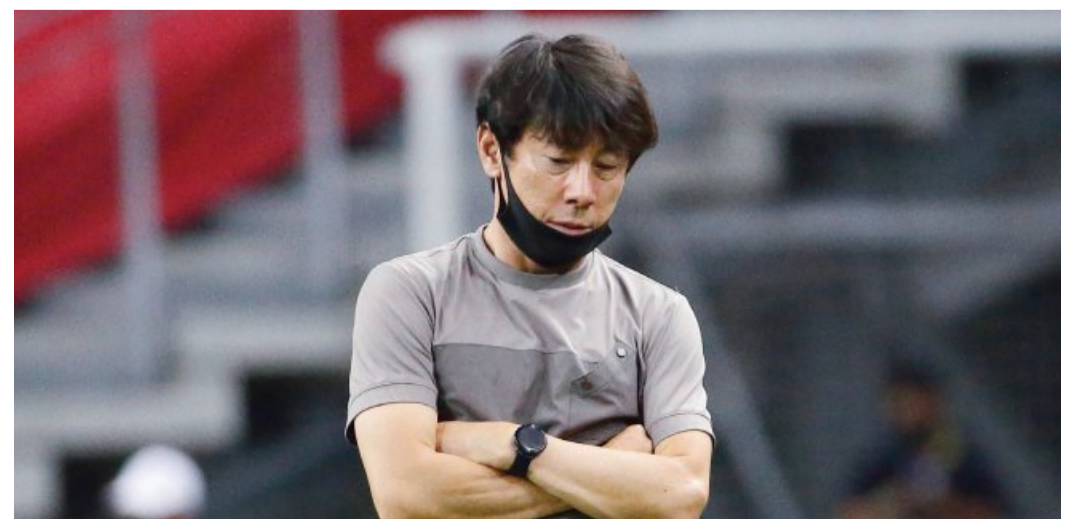
인도네시아는 1996년 시작된 13회째인 스즈키컵에서 5차례 결승에 진출해 모두 준우승했다.

2019년 12월 인도네시아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신태용 감독은 '동남아시아의 월드컵'으로 불리는 스즈키컵엔 이번이 처음으로 나서서 조별리그 조 1위를 이끈 뒤 싱가포르와의 준결승을 어렵게 잡고 결승까지 진출했다.

하지만 '박항서호' 베트남을 제압하고 결승에 오른 태국은 강했다.

결승 1차전에서 인도네시아는 전반을 0-1로 버텼으나 후반에 태국에 3골을 내주고 무너졌다.

신태용 감독은 "공은 둥글다"며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싸우겠다"고 2차전을 기약했다. /연합뉴스



29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칼랑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아세안축구연맹(AFF) 챔피언십(스즈키컵) 결승 1차전 태국 대 인도네시아의 경기에서 인도네시아의 신태용 감독이 아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